

미얀마 연대 5월정신 세계화...미래세대와 호흡은 미흡

5·18 41주년 공식 행사 마무리

코로나로 행사 취소·축소 아쉬움 전국 동시 개최 대신 지역별 행사로 젊은 세대에 시대정신 전파 '숙제' 국민의힘 초청 화해의 손길 의미 진상조사위 진실 규명 기대감 커

5·18 41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진상 규명'의 과제 외에도, 5월 정신이 젊은 세대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일깨우면서 아시아 각국의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5·18 41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때문에 전야제 등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기념식도 참석자 규모를 크게 줄였고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충북·전북·세종 등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하려던 5·18 기념행사는 지역별 행사로 만족

아했다.

'오월, 시대와 눈맞춘다. 세대와 발 맞추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진행된 기념행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세대에 5월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5·18을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에게 5월 정신에 대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전야제에서는 미얀마의 상황을 형상화한 공연을 통해 미얀마 현지인들의 직접적 발언을 소개하고

이들이 5·18기념식 직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가 하면, 오월어머니들은 재한 미얀마 활동가들에게 주먹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얀마인들이 직접 오월의 광주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야기 하고 광주가 손을 내민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이 군부 독재로 폄박받고 있는 미얀마와 연대하면서 아픔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5월 정신 세계화'를 위한 바람직한 행보라는 게 시민들 평가다.

5월 단체가 처음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국회 의원들을 정식으로 '추모제'와 '부활제'에 초청한 점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졌다.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화답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41주년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41주년을 맞는 올해 중간 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를 알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5·18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역민들은 풀리지 않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왜곡·폄훼 세력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의 진실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남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에 부는 '부동산 열풍' 왜?

연륙교 개통·섬 개발 맞물려 호가 뛰고 거래 급증...공시지가 9.77% 올라 외지 투자자 문의 빗발 속 투기 우려...사전정보 빼내 땅 산 균의원 적발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이 신안으로 쏠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국내 여행 증가와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다. 당장, 땅값과 거래 현황이 급증했고 일부 유명 섬 주변 땅은 외지 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신안군과 전남도 등의 관광 개발계획까지 더해지면서 투기 열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신안군의 지난 5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걸취 9.77% 나 올랐다. 최근 3년 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5% 대(2018년 5.66%→2019년 4.38%→2020년 4.8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영향도 있지만 다이나몬드 제도 등 섬을 잇는 연륙교 개통, 관광객들

눈에 띄는 해변 위주의 개발전략이 맞물리면서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거래도 급증했고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자은도의 경우 지난 2018년 말 3.3㎡당 20만 원 수준이던 매매가가 무려 8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런 데도 구매하고 싶다는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역 부동산에 잇따르고 잇따르고 있지만 매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업자는 "자은도의 경우 해변가 주변 전망좋은 위치의 땅을 매매가가 천사대교 개통 이후 6개월 사이에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일부 토지의 경우 이미 외지투자자들이 사들여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한 중개업자는 "매매 문의가 많다보니 일부 땅 주인들 중에는 3.3㎡당 100만원까지 부를 정도"라고

말했다.

신안군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 투자유치팀에는 관광 SOC 등 투자자들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호기만 된 게 아니다. 신안지역 토지 거래량은 2019년 3642건에서 지난해 4308건으로 증가했다.

이러다보니 투기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장, 신안 균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 미리 목 좋은 땅을 사들였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신안균의회 소속 A 의원을 수사중이다. A 의원은 압해도 땅을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아 사들였는데 현재 3배 이상 뛰었다.

경찰은 A 의원 의원실과 자택, 신안군청 개발·허가 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상태로,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력성 띠 게임했다고 종교적 신념 없는것 아냐"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잇따라

폭력성을 띠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

졌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무기를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이 있지만 게임을 했다는 것으로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 사건 4건 모두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도 모두 비수했다.

2016년 9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B(26)씨의 경우 온라인 게임사 회원 가입 및 폭력성 내포한 게임 기록이 있지만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015년 8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8)씨도 온라인 게임, 웹하드 계정, 폭력·음란물 다운로드 기록 등도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D(28)씨도 폭력성을 포함한 게임을 한 것만으로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 주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틀에 갇힌 '기계적 항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올 첫 병역 판정 검사

2021년도 첫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들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